| 새바람 행복 경북! | **경상북도 보도자료** | 2020. 2. 24(월)<br>TEL. 054-880-4322 |
|---|---|---|

| 제 목 | 담당부서 | 비 고 |
|---|---|---|
| ① **이철우 지사, 코로나19 발빠른 대처... 피해 최소화에 총력**<br>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북도의 긴급사항 건의<br>정부... 중증확진자 전문병원 이송, 의료인력 긴급 파견 등 즉시 수용 | 대변인 | |
| ② **경산 '반곡지' 주차장 확충.... 방문객 편의 제공**<br>제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원안 및 재심의 결정 | 도시계획과 | |
| ③**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분서주...**<br>**종교계·유관기관과 대응책 논의**<br>종교계 주요인사와 회동..예배등 종교행사 자제 요청<br>유관기관장 회의.. 관계기관별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 문화예술과<br>자치행정과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2. 24(월)】 | 담당부서 | 대변인 | | |
|---|---|---|---|---|---|
| | | 작 성 자 | 대변인 | 이 상 학 | |
| | | | 팀 장 | 이준희 | 주무관 | 이영순 |
| | | 연 락 처 | 054-880-4322 | | |

# 이철우 지사, 코로나19 발빠른 대처... 피해 최소화에 총력

## -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북도의 긴급사항 건의 -
## - 정부... 중증확진자 전문병원 이송, 의료인력 긴급 파견 등 즉시 수용 -

코로나19 대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빠른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23일 현재 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중증확진자 6명 중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1명은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의 중증확진자를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중증환자 6명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으로 즉각 이송토록 조치하겠다”고 즉시 수용한 결과다.

이 지사는 “중증확진자의 경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는 의료원의 전문의 및 시설과 장비의 미흡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신속한 확진 검사 및 조치를 위해 전문 역학조사관, 검사인력 및 의료인력을 긴급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해 역학조사 수요가 폭증해 전문인력 증원이 절실하다. 1일 평균 검사량이 300건이 이상 접수 된다”며 “전문 역학조사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지연돼 감염병 조기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3개 의료원에 확진자 입원이 증가해 내과의사 18명, 간호사 9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대책본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중인 500건의 검체 중 400건을 서울의 수탁기관으로 이송해 신속한 진단검사 및 조치기 이뤄지도록  했다.

또 이 지사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과 장비 등을 조기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산이 있어도 구매가 지연되어 현장에 즉각적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다” 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예정인 이스라엘 성지순례팀 19명에 대해 공항에서 바로 검체를 실시하고 안동 청소년수련원에 격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며 “단체 격리 불가시 검체 실시 후 자가 격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확진판정을 받고도 격리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도민들이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신속히 격리병상을 배정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 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안동의료원 21명, 포항의료원 1명, 김천의료원 11명 등 33명의 확진자에 대해 23일 병상배정을 완료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으로 격상됐다” 며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다. 도와 시군, 의료진과 전 도민이 화합하여 발빠르게 총력 대응 할 것” 을 당부했다.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2. 24(월)】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
| | | 작성자 | 과 장 | 김 준 호 | |
| | | | 팀 장 | 도영호 | 주무관 정성길 |
| | | 연 락 처 | 054-880-3918 | | |

# 경산 ‘반곡지’ 주차장 확충.... 방문객 편의 제공

## - 제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원안 및 재심의 결정 -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2건*을 심의하여 원안 및 재심의 각각 의결했다.

* 안건별 심의결과 : ①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 원안,
②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재심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용도지역 변경」건은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238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용도(농림→계획관리지역) 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했다.
이곳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된 이후 ‘반곡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인근에 주민체육시설 부지를 주차장(53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통과로 주차장 확충으로 늘어나는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미개발 주거용지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A=240,610㎡)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심의 의결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20. 2. 21.(금) 14시～
◆ 장　　소 : 대구청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 회의실)
◆ 참　　석 : 14명 정도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안　　건 : 2건 (경산 1, 구미 1)

## 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안)

○ 위　　치 :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238번지 일원
○ 신 청 자 : 경산시장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779㎡
※ 반곡지 방문객 주차장 조성 (경산시 권한)

## 2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06번지 일원
○ 신 청 자 : 구미시장　　* 사업시행자 : 가칭)구미원호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내　　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A=240,610㎡(1,064세대 2,767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A=240,610㎡

| 용 도 | 면적(㎡) | | | 비율(%) | 비 고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합 계 | 240,610 | - | 240,610 | 100.0 |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96,575 | 감 56,336 | 140,239 | 58.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1,722 | 증 56,336 | 98,058 | 40.7 | |
| 자 연 녹 지 지 역 | 2,313 | - | 2,313 | 1.0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br>【20. 2. 24(월)】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br>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 |
|---|---|---|---|---|---|
| | | 작성자 | 과 장 | 한 재 성<br>정 진 환 | |
| | | | 팀 장 | 박재영<br>방주문 | 주무관 | 김철년<br>황영석 |
| | | 연락처 | 054-880-3130<br>054-880-2812 | | |

#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분서주... 종교계유관기관과 대응책 논의

## - 종교계 주요인사와 회동... 예배 등 종교행사 자제 요청 -
## - 유관기관장 회의... 관계기관별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의 코로나19 대응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오후에는 경찰청, 교육청, 50사단 등 유관 기관장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이 지사는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과 경북기독교총연합회장 설정수 목사,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무처장 조현권 신부와 안동교구 총대리 조상래 신부 등 불교와 기독교 등 지역 종교계 지도자를 초정해 그간 지역종교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오후 2시 30분터 임종식 도교육감, 박건찬 도경찰청장, 엄용진 육군50사단장과 이관 경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도 전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대를 막고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 단계에서는 확진자를 빨리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일수록 신속한 결정과 지나칠 정도로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며 “각 기관들이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찾자” 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임 교육감은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PC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우려 된다” 며 도 차원의 지원책을 건의했다.

박 청장은 “경찰은 확진자, 의심환자 파악의 최일선에 있다” 며 “방역을 할 때 경찰서도 꼭 같이 해줄 것” 을 요청했다.
또 박 청장은 “의심환자 소재추적, 격리시설 질서유지 등에 법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경찰력을 지원 하겠다” 며 “도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대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엄 사단장은 “사단에서 보유한 의료인, 병상 등은 능력이 되지 않지만 인력지원이 필요할 때는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